

노동력을 저축해뒀다 필요할 때 지원 받아

[말방아에 깃든 수눌음] 자율적 노동교환, 강제적인 본토 두레와 달라

데스크승인 2014.02.27 김현중 기자 | tazan@jejunews.com



수눌음은 제주 특유의 품앗이 형태로, 다른 말로는 '나눔 장시(장사)'라고 불린다.

때를 놓쳐 한해 농사나 집안일 등을 망치지 않기 위한 선조들의 지혜의 산물로 매우 합리적인 노동 교환방식이란 평가다. 수눌음이란 말은 '품앗이하다'란 뜻의 제주방언 '수눌다'의 명사형이다.

특히 수눌음은 개별적인 자유 계약에 의한 대등한 노동 교환이라는 점에서 본토의 논농사지대에 서 강제적인 의무 규정에 따른 마을 구성원 전체의 참여로 행해지던 '두레'와 대별된다.

도민들은 마을일이나 이웃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수눌음을 통해 해결했다. 집을 짓고 농번기에 김을 매거나 밭을 밟을 때, 큰 나무를 베어내 옮기거나 길을 닦을 때 등이 해당한다.

예컨대 마을 주민의 집을 지을 경우 가구별로 한 사람씩 나와 여자들은 물을 저 나르고 남자들은 벽을 쌓거나 흙질하고 지붕을 덮었다. 소를 키울 때도 수눌음의 한 유형인 '번쇠'가 구성돼 이웃끼리 소를 모아 목초지에 방목한 후 구성원들이 순번에 따라 소들을 관리했다.

수눌음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정직과 검약정신에서 비롯됐다. "공짜 먹쟁허당 가냐귀 알아구리 털어진다(공짜 먹으려다 까마귀 아래턱 떨어진다)"거나 "산 때 안 문 빛 죽영가도 물어산다(살았을 때 못 갚은 빚 죽어서도 갚아야한다)"는 속담에 도민 정서가 투영돼 있다.

김순이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은 "수눌음의 백미는 품삯을 계산하지 않고 노동을 저축해뒀다 먼저 신세를 진 사람이 원하면 최우선적으로 돕는 데 있다"며 "과거 건강한 공동체를 떠받치던 근간으로 수눌음 정신이야말로 현대사회의 신뢰를 회복해 줄 열쇠"라고 지적했다.

김현중 기자 tazan@jejunews.com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